문화·관광·스포츠 3대축 육성…찾아오는 영광 만든다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민선 6기 남은 1년 김준성 영광군수의 군정 운영 키워드는

4대 종교성지 명품 관광자원으로
상사화축제 올해 100만명 목표
명품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노을관광 1번지 머무는 관광으로
다양한 공연으로 문화갈증 해소
각종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유치

'문화·관광·스포츠의 3박자를 갖춘 개성있는 역사문화관광지.'

김준성 영광군수가 꼽은 영광의 미래를 상징하는 키워드다. 김 군수는 후반기 군정 방향도 역사문화,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지면서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영광'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민들에게도 대도시에 못지않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불교 최초 도래지

춘계 전국남녀 중고농구연맹전 영광대회

◇**명품 역사문화유적…개성있는 대표 관광도시로**=영광의 자산은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들이다.

우선, 4대 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성지(聖地)가 이곳에 다 있다.

개신교는 6·25 당시 순교자 77명이 숨진 영광 염산교회가,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지이자 원불교가 문을 연 영광 영산성지, 인도 스님 마라난타가 도착해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지역이면서 불갑산에 처음 세운 불갑사, 조선 신유박해(1801년) 당시 순교한 신자를 추모하는 천주교 순교 기념관까지 다 여기에 있다. '성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문 도시이기도 하다.

김 군수는 이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민선 6기 남은 1년도 여기체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영광 4대종교 관광자원화 추진방향 설정' 용역을 토대로 기독교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과 체험장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에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익을 위한 탐방객 전용 승강기 등 체험형 종교테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앞서, 원불교 영광국제마음훈련원과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및 전시관을 건립한 바 있다.

불갑산 상사화축제도 내실있는 축제 콘텐츠를 갖추면서 80만명이 다녀간 국내 대표 축제로 발돋움했다. 다음달(9월 15~24일) 열리는 축제도 상사화 꽃길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0만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법성포 단오제는 지난해에만 15만명이 다녀간 대표적 전통세시 민속축제다. 영광군은 법성포 단오제만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은 전통민속놀이를 발굴, 국내 대표 민속축제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노을관광 1번지로…체류형 관광 명소로**=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안 최고의 낭만적인 해안도로로 유명하다. 전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에도 꼽힌 명품 해안로다. 구불구불한 도로와 칠산 앞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지며 낙조감상지로 최적지다. 영광군은 이 일대 해안도로 길용리~대신리 일대에 산책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는 방침이다.

영광칠산타워도 노을 관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 규모로, 지난해 4월 문을 연 뒤 11만명이 꾸준하게 찾았다. 서해 칠산바다 너머로 타오르는 노을 경관은 황홀하다.

영광군은 이같은 점을 활용, 영광칠산타워 주변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영광칠산타워, 영광대교 등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통한 백수해안도로변 리조트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캠핑 인구의 수요를 감안,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고 영광대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관광객 발길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과 이들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 관광객 등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적극 알리는 방안도 꼼꼼히 챙겨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영광군은 '문화예술 향수기회의 확대'를 모토로 영광예술의전당을 적극 활용,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이 손쉽게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개관 4년차인 영광예술의전당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립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우수한 공연작품을 유치해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 코미디, 연극, 무용, 오페라 등 31차례의 공연이 펼쳐졌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면서 최신영화도 폭넓게 상영, 지역민들의 문화 체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3월 CGV와 개봉작 영화상영 협약을 체결, 총 72일간 264편의 영화를 상영해 2만5184명이 광주까지 오는 불편함 없이 지역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군은 또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스포츠 산업도 지역 발전 기회로**=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 준공 이후 매년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 지역을 알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해왔다. 전국 규모 대회나 전남도 단위 대회 개최도 매년(2014년 13회→2015년 15회→2016년 20회) 늘어나고 있다. 유도·축구·태권도 전지 훈련지로도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 3년간 40만명이 영광을 돌아보고 갔다.

군은 경제적 파급효과만 3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최근 신축한 실내보조체육관·트레이닝장과 내년 6월 축구장(2면) 확충이 이뤄지면 더 많은 전국 규모 대회가 가능해져 스포츠선수들로 영광이 북적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김준성 군수는 "영광칠산타워, 영광대교 등을 비롯, 다양한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면서 "영광만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모색, '다시 찾는 영광'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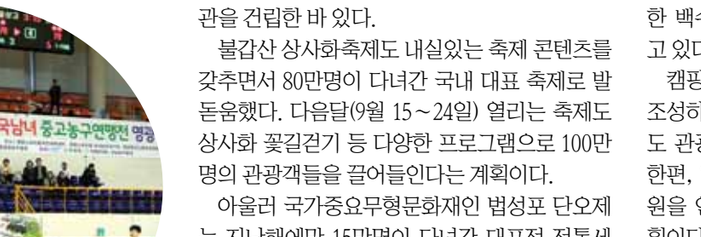
여행전문 블로거 팸투어

숲쟁이공원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르이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르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